

위기의 지구촌과 녹색투쟁

이 경 식 < 국립공원협회 회장 >



최근 고 잘생긴 미국의 부통령 엘 고어가 지구환경문제에 쏟는 관심과 노력은 매우 열정적이다. 그는 자신의 저서 <위기(危機)의 지구> (원제 : EARTH IN THE BALANCE)에서 오늘날 인류문명과 공해 및 환경오염이 인간을 파국의 벼랑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위기의 근원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 연관되는 것이니 만큼 지구를 살리기 위한 녹색(綠色)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썼다. 실제로 그는 확신을 갖고 국내외 녹색환경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다. 오늘날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환경공해에 찌들어 파괴돼 가는 과정을 걱정하는 세대의 반영이기도 하다.

지구 생태계 원래 모습을 식물의 서식형태로 표시한 컴퓨터지도를 보면 오늘날 환경파괴와 오염에 의한 지구위기의 증세가 어느 정도인가 알 수 있다. 녹색대(綠色帶)의 색상(色相)은

눈에 띄게 희미해져 상대적인 파괴의 흔적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순녹색이 아닌 중간녹색의 아마존 밀림에는 군데군데 구멍이 나있고 초원과 사막을 표시하는 오렌지색도 크게 변해 있다. 지구의 녹색은 사라져가고 있고 이제 환경문제는 단순한 해결현안이 아닌 인류사회의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지구녹색의 파괴는 깨끗한 물, 맑은 공기가 그만큼 줄어들고 있는데 연유한다. 깨끗한 물, 맑은 공기는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무한정하지 않다. 사람들이 지금 당장 수자원과 대기를 보호하기 위한 근원적인 정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예측보다 더 엄청난 녹색의 파괴와 환경훼손의 비극적인 결과에 이를 것임을 과학자들은 경고한다.

공기와 물은 모두 천혜의 자연자원이다. 공기는 산이요 숲이요 푸르름(녹색)이며 물은 바로 자연속에서의 생명의 근원이다. 그런데 지금 산은 산대로 물은 물대로 모두 병들어 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병들어 쇠잔해지지 않

을 도리가 없지만 따지고 보면 그 모두가 사람들 탓이니 어디 원망할 데도 달리 없다.

인류문명의 역사는 개발의 전개과정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람이 자연생태계의 한 구성분자로서 생물의 일부임을 깨닫지 못하고 마구잡이 개발로 자연환경을 부수고 오염과 공해의 재난을 자초했다. 그래서 이제 문제의 시급한 해결은 물이나 대기오염에 국한되지 않는다. 보다 근원적이어야 한다.

우선 지난날처럼 환경과 경제를 배타적으로 분리·접근해서는 안된다는 점이 강조돼야 한다. 특히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경제정책은 국내외적으로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 이른바 녹색산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함께 곧 밀어닥칠 그린라운드(Green Round) 극복의 과제 등도 모두 여기서 비롯된다.

대체로 1%의 성장을 가져오는 국민총생산(GNP)은 보통 0.6%의 국민총오염 증가를 수반하여 성장으로 인한 실질적인 국민후생증진을 크게 삭감시킨다고 한다. 더 나

아가 환경파괴적인 성장방식은 결국 생산비용과 제품의 불량률을 높여서 성장 잠재력 자체를 저하시킨다.

국제적으로도 2000년대의 세계 경제질서가 지구환경보전을 대전제로 형성될 것은 분명하다. 환경과 무역규제의 연계를 주내용으로 하는 그린라운드의 엄청난 파고가 예상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자연생태계의 파괴와 공해·환경오염의 원인은 결국 인간의 한정 없는 파괴와 탐욕과 근시안(近視眼)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것이 크게는 열대림의 소각이나 밀둥자르기에 의한 삼림의 대량파괴·생물멸종률의 증가·공기와 수질오염·지구온난화 및 오존감소 등으로, 적게는 각종 공업폐기물·광물채굴에 따른 지반(地盤)훼손·하상(河床)침하·페비닐·화학세제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국민들의 실천적인 환경의식도 중요하다. 사람들은 누구나 맑은 물을 마셔야 한다고 요구하면서도 정작 무엇을 해야하는지는 알지 못

한다. 물과동이 나면 정수기나 생수니 하며 당국을 원망하지만 이웃끼리 힘을 모아 대응한다든지 수질오염을 직접 조사해 본다든지 하는 근본적인 활동은 생각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환경단체에 가입하거나 자연보존 관계 협회 등 조직을 이용해서 정부나 기업에 체계적인 압력을 가하는 일, 다시 말해 「녹색의 투쟁」을 벌여나가는 일에 소극적인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 우리 국립공원협회 회원만이라도 지극한 자연 사랑의 마음으로 「깨끗한 산하(山河) 지키기」운동에 지속적으로 앞장서야 할 것이다.

모두들 당장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확보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맑은 물을 얻으려면 먼저 녹색의 숲을 가꿔야 한다. 우리들이 그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산과 들에는 자연의 물과 숲이 가득차 넘쳐야 하고, 도시와 사람들의 심성에는 녹색의 향기가 그윽히 피어나야 한다. ♪